

“새정치 독주 막자”... 전남 무소속 단일화 확산

함평군수 후보 방식·일정 합의 ... 목포시장 의견 접근

여수시장 물밑 진행중 ... 완도·해남은 단일후보 확정

6·4 지방선거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바람이 번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무원칙과 혼란을 틈타 무소속 바람이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맞서기 위한 단일화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성호, 노두근 후보가 단일화 방식과 일정에 합의하고 목포시장, 여수시장, 장흥군수, 구례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 간에도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평군수 선거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안병호 군수에 맞서 무소속 김성호, 노두근 후보가 27~2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29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목포시장 선거의 경우 무소속 홍영기, 박홍용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이상열 후보에 맞서기 위한 단일화 논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홍 후보는 “시민들 사이에서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주를 막고 목포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박홍용, 김종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박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행했던 협의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수시장 선거에서도 현 시장인 무소속 김중석 후보와 또 다른 무소속 김동태 후보 간 물밑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구례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정정섭, 김종용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 후보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장흥군수 선거의 경우, 3선을 노리는 이명호 후보에 맞서는 무소속 김성, 정중순, 최경석 후보에게 무소속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구체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완도군수와 해남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이미 성사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일전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수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후보에 맞서 무소속 김인철, 이용섭, 송주호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해 지난 21일 최종적으로 김인철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 김병욱, 박용상 후보가 지난 19일과 20일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 김병욱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며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각계,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러시

전직 교장 258명 장휘국 지지 교수 250명 윤봉근과 손잡아 교육원로 600명 양형일 지지 NGO 연대 등은 김영수 밀어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이 지역 교육계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거운동이 조심스러워진 데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교육감 선거는 광주시장 선거에 비해 관심이 떨어져 이를 알리기가 쉽지 않아 우선 교육계에 전격력하는 분위기다. 교육계도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거나 정책협약을 맺어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지역 전직 교장 258명의 지지를 끌어냈다.

전직 교장들은 26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장휘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후보는 변화와 상상력과 학력의 바람을 일으켰다”며 “민선 1기에 싹트기 시작한 광주교육의 혁신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이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명이 장 후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윤봉근 후보는 광주지역 교수 250명과 손을 잡았다.

이들은 “합리적인 진보를 주장하는 윤 후보를 광주시교육감으로 선택한다”며 “윤 후보만이 통합과 소통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광주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윤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이 지역 여성계 대표와 학부모 등 604명이 참석해 윤봉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형일 후보에 대해서는 26일 교육계 원로 600여명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며, 지역 학부모교육단체들도 조만간 양 후보 지지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영수 후보는 지난 14일 NGO한국시민의식개혁시민연대 등 이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찾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어서 선거일 직전까지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선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대희 총리후보자 청문회 험난 예고

5개월간 16억 수입 ... 전관예우 논란

안 “늘어난 재산 11억 사회환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애초 예상을 깨고 안 후보자에 게서 각종 흠결이 드러나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총리후보자 지명 직후 불거진 변호사 수입료와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 국제정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 등이 논란을 키우면서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5개월간 사건 수입과 법률 자문 등으로 총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억여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고 4억7000여만원은 불우아동 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검사직에서 퇴임 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07년 11월 대검 차장에서 퇴직한 후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가 이듬해 6월까지 7개월간 7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결국 낙마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법인세 변론=안 후보자는 지난해 국제정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한 기업

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았다.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제정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는 조세 사건이 적절했으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등 수사 무죄=안 후보자가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벌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 등을 수사, 당시 자민련 이인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이후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산 22억원 중 11억원 사회 환원=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중구 회현동 소재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두 22억4092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자 명의 재산은 가액 12억5079만6000원의 회현동 아파트를 비롯해 현금 5억1950만원, 예금 3억3195만원 등 모두 15억4251만1000원에 달했다. 배우자 소유 재산은 예금 2억4550만8000원과 70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등이다.

안 후보자는 이에 앞서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갑작스레 재산이 늘어난 것이 문제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후보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발표문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화순군수 무소속 후보 지지” 배경 뭘까

화순군수 선거전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화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화순·나주 문종안 당협위원장은 최근 당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소속 임호경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화순의 발전과 군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당원협의회에서 결의했다. 임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여론 홍보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화순의 최대 현안인 화순유동공사와 무등산 개발 등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임 후보로 판단돼 지지하게 됐다”고 지지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경 후보 측은 “이번 지지선언은 임 후보와 무관한 일로, 새누리당 측과 사전교감을 갖거나 접촉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에 지지의도를 되물었을 정도”라면서 “새누리당측으로부터 화순지역의 특성상 지지정당을 떠나 모두가 화순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이라는 점에서 임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 불발

여야는 26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양측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원진 특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간사 등 4명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만나 이견조

울에 나섰으나 대안기관 및 증인 채택 문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현명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교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미지예우리웃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영 투레유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